

주일 예배 후 한인 헬로우십 안내

주일 11시 예배 후 체육관에서, 한인들간의 교제 테이블 모임이 12:15-1:15시까지 있습니다.
커피와 떡을 나누면서, 한주간의 삶과 예배에서 주신 감동을 나누고, 사랑을 갖는 모임입니다.
친교시간에 다음 세대를 위한 모임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3세-5학년 (벽난로방) / Youth (Willamette C)

다음 세대를 위한 모임 안내

- 수요일: AWANA 6:30-8:15pm
- 주 일: 2살 미만 (1층 Nursery),
2-3살 (131호), 4-5살 (130호),
1-5학년: Promise Land
- 중등부: 주일예배 (11am-12:15pm),
목장모임 (수요 저녁 6:30-8:30)
@ 노스빌리지
- 고등부: 주일예배 (11am-12:15pm) @ 채플,
목장모임 (수요 저녁 6:30-8:30)
@ 윌라멧

한인부 정기 모임 안내

- 수요일 : 7:00pm (채플, 한어 예배)
- 새벽 기도회 : 월-금, 5:30am (대예배실),
토, 6:00am (음악실)
- 중보 기도회 : 월요일 7:30pm
(형제: 231호 / 자매: 윌라멧 A)
수요일 9:30am
(자매: 헬로우십홀)

봉사 당번 안내

	5/29	6/5	6/12	6/19
헬로우십 다과	백향목/투르카나	105도/암만	IMAN	MK
어린이 돌봄	조혜연, 박주애 / 이남순, 조지영	최설아, 김윤진 / 노현주, 전혜경	이은경, 조희정 / 이윤경, 이창열	장경림, 신윤선 / 유세정, 박나경
주차 봉사	임종화/황규섭	김동현/지종성	변상윤/Tom Flynn	이종천/김민수
예배 안내	미엔/스팍스 (5월) & 레바논 (6월)			

한인부 목장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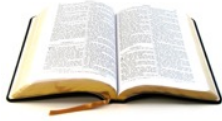
한인부 목장은 5가정(부부목장) 또는 8명(형제, 자매 목장)이하로 모이는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부부 목장			
기니	이종천/지은	금 7:30 pm	Full
105도	정현균/기숙	금 8pm	
미엔	조용희/희정	금 7:30pm	
투르카나	이장춘/영주	미정	
IMAN	신성우/일지	금 7:30 pm	Full
MK	김민수/미숙	금 7:30 pm	Full
메디	홍영기/진영	금 6:30 pm	Full
라운	임종화/민디	금 7 pm	Full
바마코	변동준/미미	금 7 pm	Full
사하라	배성웅/은정	토 10 am	Full
스팍스	박진환/미희	월 6pm	
라오까이	김만경/영화	목 6:30pm	Full
우간다	유광현/연실	금 8pm	Full
레바논	김명제/은경	금 8pm	Full
형제 목장			
시리아	이청호	금 8pm	
자매 목장			
샤론	손국자	수 11 am	
미얀마	김하운	목 10am	Full
백향목	최영선	금 7 pm	
아테네	이미영	월 10am	
암만	황순옥	화 10:30am	
특별 목장			
신장	조충훈	-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1-11)

균형 잡힌 성장 Pursuing Truth	응답하는 예배 Responding in Worship	살롬 공동체 Marked by Love	변혁 공동체 Living the Gospel
----------------------------	----------------------------------	--------------------------	-----------------------------



내재하시는 성령님 The Dwelling Presence

본문: 에베소서 2장 19-22절
설교: 렌지 아브라함 목사

에베소서 2장 19-22절

-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거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 (20절)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잇돌이 되십니다.
- (21절)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 (22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로마제국이 확장하는 가운데 여러 인종들이 제국 안에 포함되면서 에베소 도시에도 많은 인종들이 섞여 살게 되었고, 에베소 교회에도 여러 인종의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인종 문제로 인해 갈등들이 생겼고, 이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들에게 성도들은 인종 문제로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이며, 성도는 살아계시는 성령님의 '성전'으로서 한 성령님이 모든 성도에게 내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에서 유래되는 '성전'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성령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삶으로 말씀읽기:

- 고대 사회에서의 성전은 무엇이었습니까?
What was the temple in ancient world?
-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당면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What is the significance of being God's temple and how does that address struggles we might face?
- 우리가 거룩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What does it mean that you CAN create sacred space?
 - 우리는 어느 곳에 거룩한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까?
Where are the places you ought to create sacred space?
 - 어느 곳에서 여러분은 그 거룩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Where are the places in your life you are struggling to create sacred space?
 -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은 이 세상에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What story, what symbol is your life communicating to the world?
- 성령님의 성전이 주는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What are other implications of being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

함께 꿈꾸는 하나님 나라 #1

"2016 말씀집회에 반응하며 드리는 공동체의 고백"



[아래는 지난 수요일예배에서 말씀집회에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반응하며 함께 봉헌한 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얼마나 중요인지 다시 크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로 인해 주님의 이름이 욱되지 않도록 하시고, 이번 집회를 통한 지속적인 삶의 변화가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자아가 죽고 주님이 높아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저희 생활에서 나타나며 기쁨과 평안이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3일간의 말씀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세상과 짝하지 말고,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주신 참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은혜로 주신 예수님을 평생 끝까지 따라가며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인간관계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더 깊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더욱 가까운 교제를 이루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삶의 인도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기를 결단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미연 언어로도 번역이 되고, 가르쳐져서,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게 나타나며 지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공동체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항상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가르쳐주시는 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른 이들의 어려움들을 보며,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관계에서 어려웠던 많은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해결을 구하는 것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세상을 바라보며 거룩한 꿈을 갖고 살아가고, 매일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내고,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상처받고 소외된 자를 위해 오셨는데, 저희 삶을 돌아보니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너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맡겨주신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데 동참하며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집회 가운데서 초대교회의 나눔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 시대에 그러한 삶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그 초대교회처럼 나눔의 삶을 살수 있다는 소망을 품게 하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십시오. 받을 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고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가치인지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꿈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빌리지 공동체가 새로운 담임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에 있는데, 새로 오실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주시길 바라고, 서로 선한 영향을 미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집회를 통해 마른 밭에 단비를 주심과 같이 저희 신앙이 자랄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회심과 결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도록 저희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집회를 통해서 잘못된 복음과 왜곡된 진리에서 전염되었던 신앙의 환상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관념적으로만 알고, 막연했던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몸이신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희 두 세사람이 함께 모이는 그 가운데 함께 하리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구원은 개인구원과 종말이라는 교리에 제한적으로 붙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원은 몸된 교회를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이것이 헌신이 아니라 상식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생명의 밥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빌리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소동케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던 것은, 나의 생명의 밥통이 고갈 되었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는데, 이런 내 삶의 힘들음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더 바라보는 축복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미 내가 살고 있는 이곳, 이 시간에 도래하였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지요. 이번 집회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고, 주위를 더 돌보며 살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찾는이를 찾아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저희들 같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고, 또 정리되지 않은 마음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서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명을 빌리지 공동체에게 주시고, 서로 함께 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너무나 사랑합니다."

"말씀집회를 통해 이미 오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 확실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이 땅에 너무 큰 가치를 두고 그것을 이루려고 애쓰던 저희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지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다가 주님께 갔을 때 '네가 애썼구나' 칭찬받는 자가 되도록 노력하며 살겠으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헌신인 것으로 생색내며 살지 않고, 그것이 상식이니 감사하며 주님 꿈 이뤄드리는 삶 되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집회를 통해서 저희 한사람, 한사람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신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로 거룩한 초청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왜곡되고, 말씀이 희석되어지는 이 시대에 귀한 종을 보내주셔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듣고, 깨닫고, 결단한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기도문을 통해서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중심성의 기도에서 벗어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구하는 바른 기도를 배우며 우리의 왜곡된 기도를 바르게 잡아 가졌습니다. 주님, 또한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힘을 합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나타내는 일에 헌신할 것이며, 또한 찾는이들, 길을 잃은 이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소속되어서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도록 하고, 매 순간 저희 삶 속에서 영원한 구원을 이뤄가게 해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번 말씀집회를 통한 우리 형제, 자매의 동일한 확신과 결단은 하늘 나라와 천국의 확실한 의미를 알게된 것과, 이제는 세상 속으로 나가 찾는이를 찾아 열정적으로 복음을 나누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서로 성령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십시오. 나라와 권세가 영원토록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희미한 하나님 나라에서 뚜렷이 보이는 그 나라를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미래를 가보지 못했지만,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그곳을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으시는 성령의 개인적 은혜 안에만 머무르기 보다는, 주변의 세상을 바라보며 함께 힘을 내는 공동체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열매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됨 같이 저들도 하나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의 뜻을 알고, 우리도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밥이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쌀이 밥이 되는 과정이 그토록 아픈 희생일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죄인된 우리를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찢기셔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나누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먹이심을 좀 더 깊이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미 저희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짐을 감사합니다. 이 능력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더욱 나타나게 하시고, 찾는이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 자라게 하셔서, 아버지의 나라가 계속해서 드러남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진리이며, 헌신이 아니라 상식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드러남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복음전파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방법 또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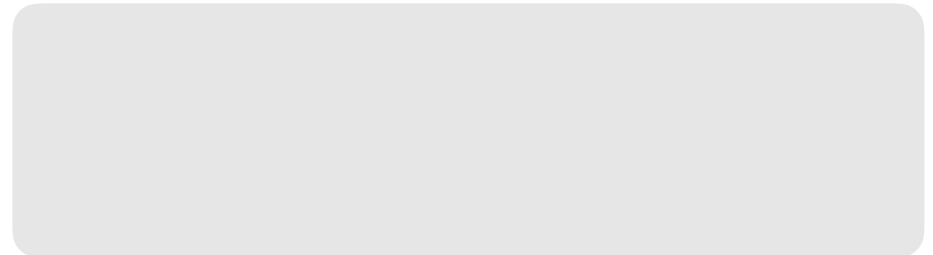


함께 꿈꾸는 하나님 나라 #2

파송선교사 소식

특정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보안 보호이유로
이 부분은 인터넷 업로드 내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보안 보호이유로
이 부분은 인터넷 업로드 내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빌리지 알림판

@ 한인부

1. 2016 빌리지 한인부 말씀집회 - '하나님 나라의 복음'

2016년 빌리지 한인부 말씀집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와 개개인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과 소망이 전달되었기를 바라고, 이제는 그 은혜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집회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신 지체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 2016년 봄학기 성장 프로그램 종강

오늘로 2016 빌리지 한인부 봄학기 성장 프로그램이 종강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언한 간증문의 일부가 한인부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 kf.vbconline.org

3. 성경통독반 (5/29)

봄학기 성장 프로그램 중 성경통독반 (구약)의 마지막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헬로우십이 마친 후, 벽난로방에서 식사 후,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5월 29일 (주일) 1:45-3:45pm
- 장소: Columbia B

4. 금주 수요일예배 (6/1)

금주 수요일예배에서는 김광현 선교사님 (OMF)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5. 새가족 환영회 (6/4)

빌리지 한인부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문의: 박정연 자매)

- 일시: 6월 4일 (토) 5pm
- 장소: 임재명/경화 부부 자택

6. 어린이 사역 안전교육 (Safety Training)

빌리지에서 어린이 사역/돌봄에 참여하는 모든 봉사자들은 매 2년마다 안전 지침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어린이 사역/돌봄으로 섬기고 계신 분들 중, 지난 2년내 안전 교육 클래스를 수강/갱신하지 않은 분들은 이번 기회를 활용해주시길 권면 드립니다

(문의: 황진희/김윤진 자매)

- 일시: 6월 12일 (주일) 1:30-2:45pm

7. 파송: 김광현 선교사, 김현주 선교사 (OMF)

지난 여름 안식년차 잠정 귀국하셨던 김광현, 김현주 선교사님께서 이곳에서의 여정을 은혜로 잘 마치시고, 오는 6/3 새로운 사명을 향하여 떠나십니다. 이 기간동안 피차간 공동체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님 가정과 미앤족을 위해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로 동역해주시길 권면 드리고, 격려와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8. 신성우 형제, 신일지 자매 가정 이주

오랫동안 한 공동체로 신앙생활하시던 신성우 형제님과 신일지 자매님 (예원, 예지)께서 오는 5/30에 타주로 이주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과 기회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의 새로운 생활과 환경에서의 적응, 새로운 교회 공동체와의 만남을 위해 기도해주시길 바라고, 격려와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9. 공동체가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고 싶은 일: 득녀

지난 금요일 (5/27), 최규진 목사와 최정아 자매 가정애, 하나님께서 둘째 딸 (최단비, Dana)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10. 월요 새벽기도회 & 월요 중보기도모임 (5/30)

Memorial Day 관계로 5/30 (월)에는 새벽기도회와 월요 중보기도모임이 없습니다.

11. 날마다 솟는 샘물 (6월호)

6월호 날샘이 도착하였습니다. 안내 데스크나 헬로우십 시간에 수령하여 주십시오 (\$4/권).

@ 온 교회

1. 새로운 시즌을 향하여 (A Season of Transition)

교회 설문에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6월 10-13일, 전문 컨설턴트인 Nancy Moore가 빌리지를 방문하여 인터뷰와 포커스 그룹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빌리지 식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빌리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로 하는 것, 기대하는 것, 이루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이해하여 차기 담임목사 후보의 윤곽을 정하는데 참고할 것입니다. 성도님 개개인의 경험, 영감, 의견들을 나눌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포커스 그룹 일정

- 6월 11일 (토) 6am @ Music Room (한국어 그룹)
- 6월 11일 (토) 10am @ Columbia Room
- 6월 11일 (토) 7pm @ Columbia Room
- 6월 12일 (일) 12:30pm @ Willamette Rooms, Bridge Room

* 빌리지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 (a) 설문 결과와 포커스 그룹 자료를 잘 취합하여, 다음 단계를 위해 주 안에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리더쉽 팀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 (b) 차기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다문화 공동체인 빌리지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은사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2. 5학년, 유치원생 주일학교 진급 (6월 25/26일)

6월 25/26일부로 5학년 학생은 중학생이 됩니다. Promiseland가 아니라 North Village로 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유치원생들은 Promiseland (231호)에서 모입니다.

5학년 학생들은 6월 4/5일 예배를 마치면서 North Village 견학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3. Tamales 모금 행사

히스패닉 헬로우십에서 레바논 선교팀을 위한 모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까지 tamales.vbconline.org에서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가격은 날개 \$1.5, 12개에 \$18이며, 주문하신 물품은 6월 4-5일 예배후 Kitchen에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 Raja (mild-filled with mozzarella, jalapeños, and tomatoes)
- Verde (medium-tamale filled with chicken and tomatillos)
- Rojo (hot-tamale filled with chicken with dried red peppers)

4. 어린이 여름 캠프 (6월 27일-7월1일 @ Tiliikum Day Camp, Newberg, \$210)

올 가을 1-5학년이 될 어린이들을 초청합니다. (등록: secure.camptilikum.org)

5. 어린이 여름 캠프 자원봉사자 모집 (16세 이상)

이번 어린이 여름 캠프(6/27-7/1)에 카운슬러로 봉사해 주실 형제, 자매님을 모집합니다. jennyk@vbconline.org 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